

구주지역

▣ 독일 기업인들이 본 2005년 독일경제 - 기대와 전망

- 지난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경제침체 속에서 독일 기업은 저임국가로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이나 노사간의 갈등이 최대 현안 사항이었음. 비록 작년도에 독일은 경기부진을 박차고 성장국면으로 진입하였으나, 기업들의 해외 이전 추세는 지속되었고, 수출이 크게 증가 하였음에도 내수는 좀처럼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유력 일간지인 한델스 블라트지가 종업원수 500명 이상인 419개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들이 전망하는 내년도 독일사업여건’ 조사에 따르면 독일 경영자들의 2005년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5년도 사업전망, 전년수준 유지

- 조사 대상의 36%만이 현재 독일내 사업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64%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음. 그러나 2003년 12월에 실시된 2004년 전망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25% 수준임을 감안하면, 2005년에는 전년 대비 사업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경제환경이 향후 12개월간 ‘2004년 보다 개선된다’ 또는 ‘2004년과 같이 좋다’라고 답변한 기업인은 50%로 1년 전의 54%에 비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강화

- 조사대상의 22%가 신규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1년 전 전망과 비슷했음. 다만 작년 초 감원을 계획한 경영인이 47%였으나, 올해는 39%가 감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원추세가 약간 수그러들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05년 감원이 가장 많이 예상되는 분야는 유통 및 교통 그리고 제조업 분야임. 특히 비용절감을 위해 관리 및 판매 부문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경영인 71%가 관리분야에서, 판매분야에서는 66%가 구조조정을 계획한다고 밝혔음.
- 이와 같은 지속적인 비용절감 절약으로 인해 63%의 독일 경영인이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수익이 증가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21%는 수익이 작년과 같은 것으로 내다보았음.

□ 기업 투자는 지속증가

- 한편, 경영인의 32%가 올해는 전년대비 투자를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2004년 초부터 시작된 기업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1년 전 투자증가를 계획한 경영인은 24%였음.

□ 공장이전은 주로 신EU국

- 독일 기업들의 생산기지 또는 판매 및 서비스사무소 해외 이전으로 인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자리 해외 유출로 인한 국내 실업 문제임. 향후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R&D 센터까지도 해외로 이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 실업난이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지난 3년간 고용인이 500명 이상인 기업의 약 19%가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였으며, 향후 3년간 해외이전을 계획하는 기업 또한 약 22% 수준으로 나타나, 예상보다는 일자리의 대규모 해외로 이전으로 인한 대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해외이전의 주이유는 저임금

- 경영인의 13%가 향후 3년 내에 신규 가입한 EU국가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중국과 기타 동유럽지역이 각각 7%와 6%로 나타났음.
- 해외이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임금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영인의 83%가 저임금을 원인으로 답변 하였으며, 65%는 국내 나머지 일자리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며, 새로운 시장개척은 36% 등으로 나타났음.
- 해외 이전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다수의 기업들은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사업분야로, 서비스, 금융, 유통업과 교통부문의 기업들이었음. 이중 1/5은 국내 사업환경이 좋기 때문에 해외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음.

□ 정부의 강한 경제개혁 기대

- 독일 경영인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급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비록 국내시장이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인정하지만, 독일 인건비는 여전히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향후 생산비용이 경제입지 결정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독일 노동시장 및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등의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음. 독일기업들은 2005년에도 정부의 강한 경제정책적 개혁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문의처 : 베를린무역관 김한일 heinlich@kotra.or.kr)